

프랑스 외교관이 남긴 한국학의 흔적*

- 『한국서지』의 출간과 그 이후 -

이상현**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서지』의 출간과 유럽 동양학자의 한국학
3. 『한국서지』 출간 이후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한국학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프랑스 외교관이자 동양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출판한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1894~1896, 1901)를 주목했다. 왜냐하면 『한국서지』가 출판되는 과정과 출간 이후의 모습은 근대 한국학의 현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국학이 정립되기 이전 시기, 서양인의 한국학과 그 학술네트워크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쿠랑이 한국학을 연구하며 자신의 논문과 저술을 발표할 수 있었던 기반과 토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쿠랑이 유럽 동양학자들 그리고 한국 개신교선교사와 함께 공유했던 학술단체와 학술지이다. 쿠랑은 동양학 학술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유럽 동양학자의 초기 한국학 논저를 참조하며, 『한국서지』를 집필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는 근대 문예물에 대비되거나, 한국 민족성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이 없다’는, ‘한국문학부재론’을 공유했다.

하지만 ‘한국문학부재론’ 혹은 서구적 근대문학개념에 의거한 한국문학론이라는 지평만으로는 이 시기 외교관, 동양학자, 개신교선교사, 그들이 공유했던 한국학의 새로운 모습을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언어·문헌학(philology)’이라는 서양의 학문적 방법론과 한국문헌

*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의 만남이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이 현장을 다시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 민족의 언어와 문학을 조사하여 그 문화의 성질을 밝히는 학문적 방법론 즉, ‘언어·문헌학’이라는 그들의 학문전통 그리고 한국문헌의 발견이라는 사건을 주목할 때, 이 시기 그들의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한국의 문헌을 통해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고자 했던 외국인의 새로운 시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신교사들의 정기간행물과 한국학 학술단체(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한국학의 영역을 개척한 『한국서지』의 출간 이후 그들 역시 이러한 연구흐름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한국학 속에는 젊은 프랑스외교관이었던 모리스 쿠랑의 흔적이 함께 새겨져 있었던 셈이다.

[주제어]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언어·문헌학(philology), 외교관, 유럽 동양학자, 한국개신교신교사

1. 머리말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동양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 이하 쿠랑으로 약칭), 그의 한국체험은 지극히 짧은 것이었다.¹⁾ 주지하다시피, 그의 한국과 첫 번째 인연은 프랑수와 게랭(François Guérin)의 후임으로 한국에서 서기관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었다. 1890년 5월 베이징에서 한국에 도착한 후 약 13개월 동안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 이하 플랑시로 약칭)를 보좌했다. 1891년 6월 플랑시가 도쿄로 전속된 이후에도 1892년 3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체험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한국이란 어떠한 장소였을까?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1) 쿠랑의 삶과 그가 남긴 동양학적 유산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 콜레주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편, 『『콜랭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모리스 쿠랑 평전과 서한자료집』, 소명출판, 2017 1부에 수록된 다니엘 부셰의 쿠랑 평전을 참조(初出: 다니엘 부셰, 전수연 역,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 『동방학지』 51·5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D. Bouchez, “Un défricheur méconnu des études extrême-orientales Maurice Courant”, *The Journal Asiatique* CCLXXI, 1983.]). 더불어 쿠랑의 한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영미,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학연구』 2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를 참조.

가끔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공사님 가까이에서 보내던 때를 생각하고 있음에 깜짝 놀랍니다. 무척이나 짧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충만했고, 저의 존재에 그토록 많은 흔적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외진 사무실에 있던 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나아가 든 것은 아직 아니겠지요?²⁾

물론 그의 서한에 새겨진 한국, 젊은 외교관 시절의 한국은 하나의 추억이자 기억의 장소였다. 위의 편지(1899.12.18., 샹티이 방면(우아즈), 비뇌이)는 쿠랑이 자신의 모교였던 프랑스 동양어학교 중국어과 교수 임용에서 실패한 후, 플랑시에게 보낸 것이다. 이 사건은 자신의 아이를 잃고 외교관에서 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 그가 겪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부침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개인사보다 주목되는 바는 짧은 한국에서의 체험을 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시간으로 의미화하는 모습이다. 쿠랑은 자신의 한국생활이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너무도 충만했”고, 그의 “존재에 그토록 많은 흔적을 남긴” 시간이라고 술회하였다.

물론 우리는 한국에서 보낸 그의 구체적 나날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엇이 이토록 그가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서한들을 펼쳐보면, 이 시기 그가 『한국서지』(1894~1896, 1901)라는 한국학 저술을, 플랑시와 함께 기획했고, 홀로 집필했고 출판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쿠랑의 이 저술은 당시 한국학에 있어 하나의 기념비적인 차원의 저술이 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서지』가 출판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을 주목해보고자 한다.³⁾ 이를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국학이 성

2)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문(『플랑시 문서철』(PAAP, *Collin de Planç*) 2권)에 대한 해제와 자료는 위의 책 2~3부와 이상현,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서지』의 흔적』, 『서강인문논총』 4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를 참조. 이하 본문에서 쿠랑의 서한문을 인용할 때는 본문 중에 “일자, 장소”를 표기하여 약칭하도록 한다.

3) 본고에서 거론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의뢰, 앞의 책, 2부[初出: 이상현·이은령,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학자의 세 가지 초상』,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이상현·윤설희, 『외국인의 한국시가 담론 연구』, 역락, 2017의

립되기 이전 시기, 서양인 한국학의 현장과 그 학술네트워크의 일면을 묘사해볼 것이다.

2. 『한국서지』의 출간과 유럽 동양학자의 한국학

① 쿠랑이 한국학을 연구하며 자신의 저술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그 기반과 토대가 존재했다. 그를 한 사람의 외교관이자 통역관으로 양성시켜주었던 제국의 동양학 아카데미즘, 또한 그의 논문을 수록했던 학회와 잡지들, 그리고 『한국서지』를 비롯한 이 출판물의 인쇄 및 유통을 담당하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⁴⁾ 무엇보다 『한국서지』 자체가 외국인의 한국학 저술이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돌출된 성과가 아니었으며, 쿠랑은 자신의 저술을 집필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했다. 이러한 동양학 학술네트워크는 쿠랑이 자신의 학술적 논거의 타당성을 점점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학술적 기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의 저술들과 그가 검토한 선행연구를 포괄하는 서양인들의 논저는 재외의 공간 속 동양학 학회가 출판한 동양학 잡지에 수록되어 서로 참조,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양학 학술네트워크에서 유통되었으며 쿠랑이 참조했던 선행연구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가 집필한 서양인들의 일본·한국학에 대

제 1부[初出 : 이상현·윤설희·김채현,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한국문학론(1893)의 근대학술사적 함의』, 『일본문화연구』 50,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이상현·윤설희, 『19세기 말 在外 외국인 한국사가론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이상현, 『19세기 말 한국사가문학의 구성과 '문학텍스트'로서의 고시가』, 『비교문학』 61, 한국비교문학회, 2014]; 이상현, 『물허진 한국문학사의 사각』, 박문사, 2017의 3~4장[初出 :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회, 2013; 이상현, 『삼국사기에 새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2013]. 더불어 쿠랑에 관한 선행연구사례에 대해서는 이해은, 『모리스 쿠랑과 『한국서지』에 대한 인식과 연구의 통시적 접근』,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를 참조.

4) 유럽 동양학자의 한국학과 그 학술적 기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구웅·조재룡, 『유럽 동양학자 레옹 드 로니의 탄생과정과 그의 한국학 저술에 관한 서지검토』, 『코기토』 8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7과 이은령, 『19세기 프랑스 동양학의 한국어 연구 : 아벨 레무자(Abel-Rémusat)에서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까지』, 『코기토』 8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7를 참조.

한 연구사 논문, 그리고 『한국서지』에 수록되어 있는 「서론」[이하 「서론」으로 약칭을 통해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⁵⁾ 서양인의 한국학과 관련해서 후자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 중요성은 『한국서지』 출간 전후의 맥락을 통해 당시 서양인 한국학의 지평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의 목표와는 별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서론」은 그의 연구사 논문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중요한 학술적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 학술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쿠랑이 한국학과 긴밀히 관련된 동양학 논의들을 참조하여, 약 170매에 이르는 분량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서론」 자체가 후일 외국인 한국 학자들이 참조·번역하게 될 중요한 한국학 논저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의의는 3장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첫 번째 의의를 주목해보자.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1892. 6. 17, 중국 베이징)을 펼쳐보면, 애초에 두 사람 사이에는 『한국서지』에 수록될 「서론」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획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관한 유럽 논저들에 대한 주석을 「서론」 안에 넣기로 합의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주석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물들을 갖고 있지도 않고, 다만 이와 관련된 약간의 카드만이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서론」을 쓰는 것은 당연히 공사님의 권리입니다. 아마도 공사님께서 그 「서론」을 준비하시고, 제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가진 자료로 「서론」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님께서 기꺼이 이 점을 받아주신다면 제가 「서론」을 쓰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인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에 대해서는 공사님께서 저보다 더 무한한 역량이 있으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필요하거나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에 관해 통찰력을 갖추셨고 또한, 공사님께서 일본과의 흥미로운 비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저는 세부사항들과 문헌들 속에서

5) M. Courant, 파스칼 그리트·조은미 옮김, 『프랑스 문헌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살림, 2009(Collège de France éd., *Études Coréennes de Maurice Courant*, Paris : Éditions du Léopard d'Or, 1983)에 수록된 「조선 및 일본 연구에 대한 고찰」(“Notes sur les études coréennes et japonaises”, *Extrait des actes du congré des orientalistes*, 1899)과 M. Courant, 이희재 옮김, 『한국서지』, 일조각, 1997[1994]에 수록된 「서론」을 참조.

갑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주지하다시피 한국 주재 프랑스 공사를 역임했던 플랑시는 본래 『한국서지』의 공동저자였다. 쿠랑의 『서론』이 집필되기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기 서한문을 보면, 『서론』의 집필을 플랑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쿠랑과 플랑시의 기획 그 자체이며, 두 사람이 “한국에 관한 유럽 논저들에 대한 주석을 『서론』 안에 넣기로 합의한” 사실이다. 이 기획은 당연히 쿠랑의 『서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선행연구업적은 『서론』의 참고문헌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그의 『서론』에 수록된 참고문헌 목록을 펼쳐보면, 당시 유통되던 외국인의 동양학 논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랑의 『한국서지』 집필 과정 특히, 그가 한국에서 출판된 한적의 서지를 작성함에 있어, 서양인의 중국학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더욱 끄는 중요한 논저들은 다른 것들이다. 그것은 1890년대에도 이미 상당량 축적되어 있었던 한국학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논저들 즉, 『서론』의 참고문헌 목록에 나열된 한국학 논저들이다. 예컨대, 파리외방전교회의 『한불사전』(1880)과 『한어문전』(1881), 한국주재 외교관이었던 제임스 스콧(James Scott, 1850~1920)의 영한사전(1891) 등을 비롯한 한국어학서, 퍼시벌 로엘(Percival Lowell, 1855~1916), 오베르트(Ernst Jakob Oppert, 1832~1903)의 한국전문록이자 민족지, 클로드 샤를 달레(Claude-Charles Dallet, 1829~1878)의 『한국천주교회사』(1874)와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의 한국학 단행본, 프랑스 동양학자 레옹 드 로니(Léon de Ronsy, 1837~1914)의 한국학 저술 등이 그것이다. 이는 1890년대 초 그가 참조할 수 있었던 당시 서양인 한국학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이었다.

하지만 쿠랑의 저술은 이러한 성과물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이

6)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75~80쪽.

었다. 그것은 한국 서적의 존재를 서구에 소개한 선구적인 업적이라는 『한국서지』가 지닌 학술적 의의이자 이 책이 지닌 특성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쿠랑의 참고서지에 목록화된 한국학 논저 중 그의 한국학 저술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저술은 세 편이었다. 먼저, 미국 외교관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편찬한 한국설화집(1889), 저명한 일본학자이자 한국에서 영국의외교관을 역임했던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 1841~1911)이 한국의 설화와 고소설을 소개한 논문이었다.⁷⁾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국의 이야기책 즉, 고소설을 서구세계에 알린 인물이었다는 점이었다. 한 사람은 고소설을 번역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고소설론을 내놓은 셈이었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의 논의는 서양인의 초기 한국문학 관련 저술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성과와 궤를 같이하는 논저이며, 동시에 쿠랑이 참조한 외국인의 한국문학론이 한 편 더 있다. 이는 서울에서 근무한 일본어 교사였던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가 『남훈태평가』 소재 국문시가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논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당시 한국문학 번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이야기[物語]와 그 밖의 작은 이야기[小話]가 외국문으로 번역되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프랑스의 선교사 등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韓語文典』의 부록 및 의사 알렌의 조선이야기[朝鮮物語(Corean Tales)] 등이 있지만, 조선의 노래가 그 생겨난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인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⁸⁾

더불어 세 사람의 한국문학론에는 쿠랑과의 또 다른 중요한 접점이 존재

7) H. N. Allen, *Korean Tales :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New York & London : The Nickerbocker Press, 1889; W. G. Aston,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h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XVIII, 1890;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雜誌』 8(74~75), 1893, 4~5쪽; 해당 역문과 원문은 이진숙·최성희·장정아·이상현 역주,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1, 박문사, 2017과 김채현·박상현·이상현 역주, 『일본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박문사, 2017을 참조.

8) 김채현·박상현·이상현 역주, 앞의 책, 31쪽.

했다. 그것은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문학관념을 한국의 문학작품에 그대로 투영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 논지와 결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양자의 관계는 서로 매우 어긋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는 바로 한국문학이 근대문학에 미달된 문학이라는 의미로 환원된다. 즉, 그들의 시야 속에서 한국문학은 열등한 문학으로 규정되었다. 그 논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한국 문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한문학이었다. 국문(언문·한글)은 그에 비한다면 위상이 낮고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이 볼 때, 한국의 국민문학이라는 의의를 부여하며 평가할만한 문학작품은 없었다. 이러한 논지는 곧 ‘한국문학부재론’이라 일컬을 수 있는 담론이었으며, 이는 쿠랑의 『한국서지』 「서론」이 유통시킨 핵심적인 중심구조와도 상통하는 바이기도 했다.⁹⁾ 물론 쿠랑은 우수한 한국문화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다. 쿠랑이 발견한 한국 문명의 정수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가능성은 「서론」의 결론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난다.

한국 정신의 명석함은 이름다운 도서 인쇄에서,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자모(字母)의 완성도에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쇄활자 구상에서 드러나는데, 나는 굳이 여기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갖가지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일본으로 전수시킨 점을 말하진 않겠다. 극동 문화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입지가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¹⁰⁾

쿠랑의 시선 즉, 서구적[=근대적] 시선과 그의 입장에서 보아도 한국은 한글, 금속활자, 한문고전세계 등과 같은 찬란한 자신만의 우수한 문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 체험했던 한국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

9) 「서론」의 한국문학부재론이 오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사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바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1927)일 것이다. 이곳에는 한국시가와 고소설에 관한 「서론」의 내용이 일부만 발췌, 번역되어 있다(조선총독부 편저, 김문학 옮김,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터임, 2010, 434~436쪽).

10)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73~74쪽.

적인 차원에서 발현할 수는 없었다. 즉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법이자 그의 개인적인 상상일 따름이었다. 오히려 『서론』에서의 중심논지를 주목해 보면 한국은 중국문화[유교]에 종속된 국가이며, ‘국어 [=모어, 일상어]’로 쓴 시·소설, 요컨대 ‘근대 국민[민족]문학’이라는 관점에 부응하는 한국문학이 부재한 장소였다.¹¹⁾ 쿠랑은 “한국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긴 고찰은, 우리에게 그것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중국정신에 젖어 있으며, 흔히 단순한 모방에 그친다는 점들을” 보여주며 “중국 문학과 역시 외부로부터 빌어왔으나 독창적인 일본 문학보다는 뒤떨어진 것이지만, 조선 문학은 몽고나 만주, 그리고 그 외의 중국을 본뜬 국가들이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우수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쿠랑이 보기에, 한국 문명이 지닌 잠재력과 그 가능성은 당연히 온전히 구현될 수 없었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이 지니고 있던 ‘소중화’라는 민족적 자존심과 이로 인한 폐쇄성, 더불어 과거 중국 고전만을 숭상하는 문화적인 정체상황,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등을 들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원인 때문에 한국 문명은 세계에 널리 전파되지 못했다. 오히려 “비좁은 왕조에서 생겨난 고도의 사상은 불화의 씨로 바뀌어” 여러 당파로 분열되어 사회적 발전을 중지시켰다고 쿠랑은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인)의 “재능은 이렇게 그들 자신을 거역했으며, 운명의 냉혹함에 구속되어 그들의 장점과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¹²⁾

『한국서지』의 총론 즉, 『서론』의 결론 부분에서 드러난 쿠랑의 한국인식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이 속에는 쿠랑이 한국의 과거를 판단하는 보편자이자 기준, 쿠랑의 한국에 관한 현재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속에는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문학개념과 한국문학의 만남이라는 사건 이외에도 당시 한국이 처한 정치, 외교적인 현실이 매우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다. 『한국서지』에는 동학 농민 전쟁에서 청일전쟁

11)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앞의 책, 47~55쪽을 참조.

12)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71~74쪽.

에 이르는 극적인 정황을 외부에서 바라 본 쿠랑의 시각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쿠랑의 시야는 과거 플랑시가 체험했던 한국의 국제정치적 현실과도 긴밀히 조응되는 것이기도 했다.¹³⁾ 1894년 7월 10일 도쿄에서 보낸 쿠랑의 편지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잘 보인다.

조선의 소식이 특히 일본을 통해, 적어도 신문들을 통해서는 공사님께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본 언론은 상황들을 특별히 과장해 보도했습니다. 뮈텔 주교님은 최근의 한 편지에서 서울에서는 어떤 불안도, 최소한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주에 거주하시는 신부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 했는데, 그 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선교사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론을 위해 교란작전이 필요했고 한국은 완전히 표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뜻밖의 일이 이들 나라가 바라던 것보다 더 먼 곳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요? 단언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 근접한 도쿄에서 근무했기에, 쿠랑은 플랑시보다 한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의 제한된 언론을 통해서 한국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플랑시와 달리,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뮈텔 주교(Gustave Charles Mutel, 1854~1933)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며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한국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청일 양군이 한국에 주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¹⁴⁾ 하지만 쿠랑이 서한을 보낸 시기는, 조선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일시적인 휴전이 성립된 시기였다. 즉, 뮈텔 주교의 언급처럼 한국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평온한 시간이

13) 플랑시의 당시 국제관계 인식에 대해서는 현광호, 「청일전쟁 이전 시기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의 조·청관계 인식」, 『대구사학』 99, 대구사학회, 2010를 참조; 프랑스의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M. Orange, 이경일 옮김, 「1910년 일본의 조선병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동북아역사논총』 29, 동북아역사재단, 2010을 참조.

14) 『프랑스외무부문서』 6, 2006에 수록된 일련의 정치공문(「【65】 삼남 지방 등의 소요로 인한 선교사들의 안전문제」(1894.5.15.), 「【67】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원인과 경과」(1894.5.25.), 「【69】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 원인과 경과」(1894.6.6.), 「【72】 소요종료와 일본군의 도착」(1894.6.8.) 등)을 참조.

도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쿠랑의 불안감대로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 즉, 일본 언론의 의도에 부합된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서론』의 결론에도 투영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듯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문학관념에 의거한 한국문학부재론 그리고 암울했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결론 내용은 당연히 『한국서지』라는 저술의 작은 한 부분이었을 따름이다.

② 쿠랑이 『서론』에서 보여준 결론은 당연히 그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쿠랑의 결론 나아가 『한국서지』의 출간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서양인의 한국학을 한국의 문호개방 전후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쿠랑의 한국학은 한국의 문호개방 이후부터 1890년대 중반 사이 등장한 새로운 한국학의 동향과 발을 맞추고 있었다. 이 시기 외국인들은 실제로 한국·한국어·한국문헌을 접촉함에 따라, 그들은 그 실상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쿠랑이 참조했던 한국문학론의 저자들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문학을 접했던 외국인들이었으며, 전술했듯이 쿠랑과 이 외국인들은 한국문학부재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문학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들의 논저만으로는 이 시기 한국문헌을 통해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연 쿠랑의 학술사적인 위상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 즉, 서구적인 근대문학 개념과 한국고소설[혹은 한국의 국문시가의 만남이라는 제한된 지평이 아니라, 유럽의 언어문헌학(philology)적인 전통과 한국 문헌의 만남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거할 때, 그 의의를 조망할 수 있다.¹⁵⁾ 한국에서 플라시에게 보낸 쿠랑의

15) 이들의 ‘philology’는 오늘날 ‘문헌학’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문세영이 『조선어사전』(1938)에서 잘 정의했듯이 ‘古典이라 불리는 텍스트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 학문, 특정한 민족의 언어와 문학을 조사하여 그 문화의 성질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즉 고전문헌학과 언어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통섭된 학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philology’는 근대초기 개신교선교사의 영한사전에서, 문헌학 혹은 서지학으로 풀이되지 않았다. 1914년, 1925년 출현한 존스와 원한경의 영한사전에서 “박언학(博言學)과 언어학(言語學)”으로 풀이된다.(G. H.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14, p.126; H. G. Underwood & H. H. Underwood, 『英鮮字典』,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 407쪽). 오늘날 과학적 언어학 이전 인문적 언어학에 대해서는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4장과 이연숙,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옮김, 『말이라는 환영』, 심산출판사, 2012, 7장을 참조.

서한을 펼쳐보면, 이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다음과 같이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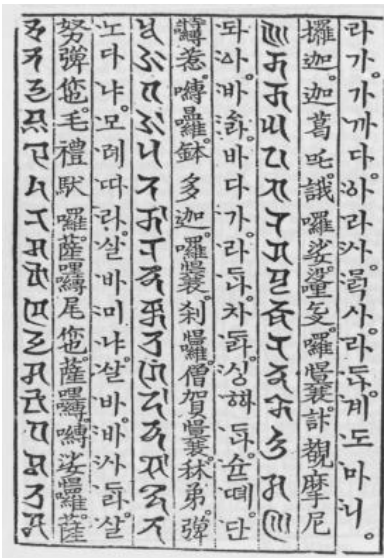
최근에 만난 스콧은 그가 편찬한 사전을 인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진지한 내용의 조선어 서적들을 상당수 지니고 있고, 흥미로운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그 약속을 상기시켰지만 아직까지 아무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1891. 8. 27., 서울)

드디어 스콧이 그의 책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것들은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흥미를 끌 만한 것들로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1777년에 나온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조선어로 된 책인데 흥미로운 여러 정보와 함께 잘 새겨진 산스크리트 전체 음절표가 들어있었습니다.(1891.9.9., 서울)

제임스 스콧은 애스턴과 함께 1884년 내한했으며, 1892년까지 인천에서 부영사로 근무했던 영국의 외교관이었다. 두 외교관은 한국과 한국의 출판문화를 직접 체험했으며, 재외의 한국학적 업적을 남기기도 한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스콧은 애스턴보다 더 많은 시간 한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했기에 애스턴과 달리, 한국학 논문뿐만 아니라 영한사전과 한국어문법서와 같은 한국어학서를 출판할 수도 있었다.¹⁶⁾ 1891년 영한사전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

16) 두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어학 저술이었다. 그들의 논저들은 『서론』의 참고논저이기도 했으며, 쿠랑의 일본·한국학 연구사 검토 논문에서도 거론된다. 애스턴은 쿠랑이 참조한 한국문학(고소설)에 관한 논저를 남겼으며, 그가 수집한 문고와 서적들은 러시아의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허경진·유춘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朝鮮典籍)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애스턴(Aston)의 조선어 학습서 *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 『인문과학』 98,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3; 이준환, 『조선에서의 한국어학 연구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끼친 유럽과 일본의 학술적 네트워크 탐색』, 『코기토』 8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김승우, 『19세기 말 서구인 윌리엄 G. 애스턴의 한국문학 인식』,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제임스 스콧이 출판한 대표적인 한국어학서의 서지는 아래와 같다. J. Scott, 『언문말칙(*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87;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Korea :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J. Scott,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Second Edition)』, Seoul :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던 스콧이 보여준 책자 중 쿠랑이 주목한 자료는 만연사본 『진언집』이었다. 『한국서지』를 펼쳐보면, 쿠랑은 이 책을 종교적 교리서가 아니라 어학서로 분류하여 그 서지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과거 불교지식인이 범어를 한글로 옮기고자 한 음운론적 지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책의 서문(『重刊眞言集序』)이 잘 말해주듯, 이 책은 『三韻聲集』(1751)에 의거하여 편찬된 것이며, 책의 한글정서법은 세종과 『훈민정음』의 지침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스콧과 쿠랑은 잘 알고 있었다.¹⁷⁾



▲ The Korean Repository(1897)에 수록된 스콧의 『진언집』 도상자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次濁
牙音	疑 의	見 견	溪 커	群 쥬
舌頭音	泥 니	端 단	透 투	定 정
唇音	明 명	幫 방	滂 방	明 명
齒音	微 미	非 비		奉 봉
齒頭音		精 정	淸 청	從 쥬
正齒音		心 심		邪 샤
		照 조	穿 천	林 링
		審 심		禪 선
喉音		喻 유		影 영
		曉 효		匣 협
半音	日 시		來 래	

▲ 스콧의 한글자모표

스콧은 1897년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정기간행물(*The Korean Repository*)에 이 자료에 대한 해제와 함께, 자료원본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제공해 주었다.¹⁸⁾ 사실 이 이전에도 그의 한국어문법서 개정판(1893)의 『서문』을 보면,

17)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136~137쪽; 쿠랑의 『한국서지』 1권(1894) Ⅱ부 언어부 5장 몽어류에는 동일한 『진언집』(1777)과 서울 근처 원각사의 승려가 제공한 필사본이 목록화되어 있다.

18) J. Scott,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그는 이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스콧은 위의 그림과 같은 옛 조선 지식인의 음운론적 지식에 의거한 한글자모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이 자료를 통해 당시 통용되지 않던 한글 소실문자(△, ○, ◌)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¹⁹⁾

이렇듯 한국인이 남긴 문헌자료를 한국학의 대상으로 포괄할 때, 당연히 한국학의 지평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스콧은 당시 통용되던 한글 혹은 한국인의 구어라는 연구대상을 넘어, 과거 한국어의 역사를 고찰하고자 했다. 그것은 훈민정음기원론 즉, 한글의 기원이라는 연구대상이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외국인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스콧은 아무런 자료적 근거 없이 한글의 기원을 상상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설총을 한글의 창제자라고 지적한 『한어문전』(1881)의 오류²⁰⁾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19세기말 서구인들의 논의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일즈(Herbert Allen Giles, 1845~1935), 파커(Edward Harper Parker, 1849~1926)와 같은 저명한 재외 동양학자의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²¹⁾

스콧[나아가 그와 같은 영국외교관이었던 애스틴]은 이러한 오류에 비한다면, 한글 창제 당시 과거 한국 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에 한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탐구는 『훈민정음』의 흔적과 기원에 근접해지고 있었다. 한편 쿠랑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 논의의 수준이 스콧 나아가 당시 서양인들의 수준을 크게 앞서 있었다.²²⁾ 그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이전, 『훈민정음』에 가장 근접한 자료(『동국문헌비고』 권51, 「악고」 소

19) J. Scott, "Introduction",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Second Edition), Seoul :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스콧의 이 논저에 대한 고찰은 이상현, 「한국주재 영국외교관, 스콧(J. Scott)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만연서본 『眞言集』」, 『한국언어문화』 99, 한국언어문화회, 2016을 참조.

20) 파리의방전교회, "Introducion", 『韓語文典(Grammaire Coréenne)』, Yokohama : Imprimerie de C. Lévy et S. Salabelle, 1881, p. V.

21) E. H. Parker, "Philological Essay", H. A. Giles, *A Chinese-English Dictionary*, London : Kelly & Walsh, 1892, p. xix.

22)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이은령,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와 훈민정음 기원론」,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2017를 참조.

재 훈민정음 관련 기록)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랑은 이 발견을 플랑시에게 아래와 같이 즉각 보고했다. 그만큼 당시 이 자료는 한글의 기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서지』를 준비하며 흥미로운 발견을 했기에, 지체하지 않고 이 사실을 공사님께 알려드립니다. 한글의 발명 날짜가 기입된 『문헌비고』의 한 대목에 세종대왕의 저서 본문이 있고, 한국어는 그 때까지 절대 글로 쓰이지 않았던 것을 표명하며, 승려 설총(신라시대)의 발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1891. 11. 6., 서울)

스콧, 쿠랑의 훈민정음기원론은 당시의 기준에서 본다면, 학술적 의의를 상당량 지니고 있었다.²³⁾ 하지만 두 사람의 저술은 이러한 한국어학사라는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이를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서양인이 발견하지 못했던 한국학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식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저술 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스콧이 재외 동양학 잡지에 제출한 한국학 논문(1894)은 이러한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²⁴⁾ 이 논문은 쿠랑의 한국학 저술들과 동시대적인 연구지평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논문의 주제이자 연구대상 그 자체가 잘 보여준다. 이는 1890년대 “유럽 열강과의 조약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교류의 역사”와는 별도의 영역이었다. 한국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그들은 “선사 이전 언어를 가진 새로운 인종과 사람들”, “고전과 시문에 사용된 중국 고유의 발음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이는 서구의 언어·문헌학자(philologists)와 중국학자(sinologues)에게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연구대상이었다.²⁵⁾

23) 오쿠라 신페이는 『조선어학사』에서 한글의 기원 즉, 훈민정음 기원론에 관한 서양인의 주요선행연구로 두 논저 모두를 개괄했다(小倉進平,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940, 166~167쪽).

24) J. Scott, “Stray Notes on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The Chin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XXVIII, 1894(이하 해당 원문과 역문은 이진숙·최성희·장정아·이상현 역주, 앞의 책, 72~121쪽을 활용).

25) 이진숙·최성희·장정아·이상현 역주, 앞의 책, 80~82쪽.

요컨대, 한국어(또한 한국민족)는 동아시아 속에서 고유한 위상을 지닌 것이며, 그 역사와 연원이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스콧은 『진언집』을 통해,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 한국문학의 시원을 발견했다. 그는 5세기 말 국교화되고, 15세기 초반까지 한국에서 여전히 지식의 보고였던 한국의 불교를 주목했다.²⁶⁾ 한국의 서적 속에는 한 편으로는 오래된 연원을 지닌 역사가 또 한 편으로는 중국문명과의 교류 및 접촉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당연히 그는 이러한 한국 고전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 소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의 희망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원산 동해안에 가까운 금강산의 고대 사찰과 수도원 등을 방문하고 산스크리트어나 한국어로 된 불교 유적과 기타 문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외떨어진 산골짜기에 힌두교나 중국 선교사들은 처음 정착했다. 종려잎과 다른 형태로 씌어진 산스크리트어 문학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민간전승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불교 사찰은 흥미로운 유적, 문학, 역사 등이 가득하지만, 승려들이 보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갖기 까지 2년의 시간과 많은 협상이 필요했으며, 이 책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한국어 자모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점을 말해주고 있다.²⁷⁾

쿠랑 역시 스콧처럼 새로운 한국학의 연구대상을 발견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연구주제는 ‘한국어’ 자체로 제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

26) 위의 책, 88쪽; 아마도 『진언집』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범례가 스콧이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옛날 고승 了義가 비로소 36자모를 찬하였다. 『옥편』과 『자휘』와 여러 책이 모두 자모를 본받았고, 음을 반절로 풀었으며, 四聲과 淸濁을 자세히 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洪武正韻』에 이르러 글자의 자모를 31개로 삼았다. 우리 조선에 이르러 자모에 의지하여 인문을 찬술하고, 그것으로 여러 경전을 번역하여 풀이하였다. 高低와 四聲은 점의 多少와 有無로 구분하였으며, 淸濁의 全次는 諺字의 홀소리와 겹소리로 변별하였다[...昔高僧了義始撰三十六字母而玉篇字彙諸書皆效字母音釋反切四聲淸濁無不詳盡至洪武正韻字母爲三十一母至於我國朝依字母製述諺文以國語譯解諸經高低四聲以點多少有無分之淸濁全次諺字單復邊辨之.]”(『중간진언집』, 『凡例(海東 妙門 龍岩 增肅 校對)』, 5장-앞면; 번역은 이능화 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역주 조선불교통사』 5, 동국대학교, 2010, 436~437쪽을 참조).

27) 위의 책, 117~118쪽.

의 ‘문헌’에 주목한 인물이었으며 이로 인해 광대한 연구대상, 한국의 고전세계를 발견했다. 따라서 스콧, 쿠랑 두 사람에게 한국학은 서구문명과 접촉한 후 비로소 알려진 근대 한국이라는 경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이며, 한국의 문헌들이 잘 말해주듯이 지극히 광대한 연구범위를 지닌 대상이었다. 쿠랑 역시 스콧과 마찬가지로, 그가 개척하고 발견한 한국학을 향한 강렬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1897년 한국복귀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쿠랑은 플라망시의 호의에 감사하며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과 고정직을 받고 일정한 기간과 적절한 봉급 그리고 특히 모든 종류의 학술적 연구와 조사에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1897. 2.5., 파리)라고 기뻐했다. 또한 “그곳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가 고고학과 언어학 그리고 여타의 것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사님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1897.4.9., 프랑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러한 쿠랑의 열원 역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한국서지』에는 그가 개척한 한국학의 새로운 영역이 산재되어 있었다. 특히, 이 저술의 총론에 해당되는 「서론」에는 한국 문자의 역사(Ⅲ장), 도교, 불교, 유교저술과 한국사상의 역사(Ⅳ장), 한문 문헌(Ⅴ장)과 한글 문헌(Ⅵ장)에 관한 풍성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는 한국의 개신교선교사에게도 큰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유용한 것이었다.

3. 『한국서지』 출간 이후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한국학

① 전술했듯이 『한국서지』 「서론」 Ⅵ장의 한국문학부제론 혹은 결론 부분의 서술내용에만 주목할 경우, 쿠랑이 개척한 당시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간과하기 쉽다. 물론 쿠랑의 『한국서지』는 출간 당시 유럽 동양학자에게 크게 주목받은 저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렇다고 해서 이 저술의

28)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외편, 앞의 책, 56~58쪽.

출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이 저술은 한국학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서구인 한국학 논저 전반을 집성하여 서목화 작업을 진행했던 원한경(H. H. Underwood, 1890~1951)은 이 저술의 의의를 잘 말해주었다. 그가 보기에, 『한국서지』는 누구나 기억해야 될 1894년에 출현한 기념비적인 업적이며, 서양인이 저술한 가장 위대한 한국학 단행본이었다. 왜냐하면 쿠랑의 업적은 1890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모든 서적을 분류한 서지로, 최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었기 때문이다.²⁹⁾ 실제로 이 저술을 대신할 수준의 개신교선교사의 동일한 업적은 등장하지 못했다. 즉, 서양인의 한국학이라는 지평으로 한정해본다면 『한국서지』는 이러한 원한경의 평가에 걸 맞는 유일무이한 학술서적이었다.

나아가 한국에는 쿠랑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주목한 원한경과 같은 외국인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집단은 1890년대 이후 한국에 오랜 시간동안 거주한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이다. 그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서양인 한국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큰 공로는 그들이 동양학 전반이 아닌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는 점에 있다.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에도 당시의 이러한 정황이 다음과 같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올링거(Ohlinger)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공사님께 *The Korean Repository*를 보낼 겁니다(1891.12.17, 서울).

② ……이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리든 저의 집이든 있는 책들을 확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e Korean Repository* 전체 (저는 첫째 해 것과 두 번째 해 몇 권만을

29) H. H. Underwood,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31, p.10 ;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31, p.40.

가지고 있습니다). ……(주해[인용자 : 1898년 프랑스에서 쿠랑이 쓴 편지로 추정]).

③ 공사님께 편지를 썼던 곳인 라 크루아로 세 권의 러시아 책 『한국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나라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 저는 *The Korea review* 1901년 판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공사님께서 1901년 치를 그리고 매 연말에 한 해 동안 출판된 것을 제게 부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모인 것들은 저의 서재 안에 보기 좋게 있을 텐데요. 저는 곧 파리에 가서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출간호를 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1902. 7.14, 프랑스 에컬리(론)).

④ 감사히 받은 1월 27일 공사님의 편지에 아직도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The Korea Review* 2년 치를 잘 받아보았습니다(1903. 3. 1, 프랑스 에컬리(론)).

쿠랑과 플랑시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시기 한국에 머물던 때가 있었다. 이 때 두 사람은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정기간행물들(*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을 서로에게 전해주었다. ①의 서한(1891.12.17., 서울)에서 보이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잡지,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내 준 잡지(*The Korean Repository*(1892, 1895~1899))는 선교사들의 선교영역이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지방으로 확장되던 시기에 출판되었다. 이 시기는 『천로역정』을 비롯한 기독교 문학,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와 게일의 한국어학서가 출판된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문화사업의 한 측면으로 한국의 역사, 문학, 사회풍속, 종교, 어학 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897~1906년 사이 각지로 부흥하는 교회의 교육 선교 사업을 위한 교과서들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 출현한 또 다른 정기간행물(*The Korea Review*(1901~1906))이 ②~④의 서한에서 잘 보인다.³⁰⁾

쿠랑이 보낸 서한을 보면, 이 정기간행물(*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의 유통망은 한국에 거주하던 이가 재외에 우편으로 직접 전달해줘야 했던 수준이었던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인용문 ③이 잘 보여주듯, 1900년도 한국에서 설립된 서구인 한국학 학술단체의 정기간행물,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는 사정이 달랐다. 쿠랑은 프랑스에서도 이 잡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술단체가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 지부였으며, 이 학술지의 유통을 담당했던 곳 역시 쿠랑의 『한국서지』를 발간하게 해준 르루(Leroux) 출판사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외교관, 유럽 동양 학자,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학을 위해 형성하고 있던 경쟁·협업의 관계망이다. 그들은 ‘서울-옌푸-텐진-상하이-요코하마-파리-런던’ 등의 시공간을 횡단하며 형성한 일종의 ‘신앙과 삶의 공동체’³¹⁾였던 셈이다. 둘째, 개신교선교사의 정기간행물들은 과거 동양학 잡지와 달리, 중국·일본 학과 분리된 한국학 전문잡지였다는 점이다. 또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는 서양인 최초의 한국학 학회였다는 사실이다. 즉,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학 학술네트워크를 그들의 정기간행물과 모임을 통해 구축했고 이를 서양인들과 공유했던 셈이다.

쿠랑의 서한을 펼쳐보면, 그는 개신교선교사의 정기간행물이 보여주는 한국학 학술네트워크 내부에 놓여 있었다. 적어도 그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한국학 연구를 위한 소망은 을사늑약 이후 한불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쿠랑의 한국에 대한 우정 혹은 한국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미권의 저술로 한정해 보아도, 한국이 영미권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관련서적들이 출판된 정점이자 계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1905)와 식민화(1910)였기 때문이다. 청일

30)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2008, 178~187쪽, 256~284쪽; 백낙준은 이 잡지들이 출현한 시기에 관련된 그 교회사적 의미를 “선교단체의 지방분거(1891~1897)”와 “교회의 발흥(1897~1906)”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31) 이언 F. 맥닐리, 리사 울버턴 공저, 채세진 역, 『지식의 계탄생 :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 살림출판사, 2009, 129쪽.

전쟁,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라는 낯선 존재의 출현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자 계기였던 것이다.³²⁾

물론 한국에 대한 쿠랑의 실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이러한 외교정세와 이에 대한 비평 및 연구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공유가 일방향이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랑이 이처럼 당시 개신교선교사, 러시아대장성의 한국학 저술을 주목했듯이, 역으로 그들도 쿠랑의 『한국서지』를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저술들에는 쿠랑의 연구업적이 반영되어 있었다.³³⁾ 3장에서는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의 쿠랑 저술에 대한 참조양상 더불어 그들과 쿠랑이 공유했던 한국학의 새로운 모습을 고찰해볼 것이다.

②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언제 쿠랑의 『한국서지』를 접할 수 있었을까? 켄뮤어 부인의 『한국서지』에 관한 서평³⁴⁾이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6월호에 수록된 사실을 통해,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왜 1897년일까? 또한 이 해는 쿠랑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이 시기는 『한국서지』 1~3권(1894~1896)이 완간된 이후로 쿠랑-플랑시의 기획이 비로소 마무리된 때였다. 더불어 1895~1897년에 학부대신 민종묵(閔種默, 1835~1916)의 요청으로, 플랑시가 쿠랑을 외국고문의 자격으로 한국에 초빙을 시도한 사실이 함께 주목된다.³⁵⁾ 이러한 정황이 1897년 4월 9일 쿠랑이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에 잘 드러난다. 이 서한을 펼쳐보면, 당시 한국 방문에 관한 쿠랑의 희망이 잘 보인다. 당시 쿠랑을 대표하는 저술이 바로 『한국서지』였다. 그는 이 서한에서 『한국서지』 3권이 출간되었고, 플랑시와 그의 사무국에 한 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켄뮤어 부인의 서평이 게재된

32)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상대적 정체성론·정치사회부패론·타율적 개혁불가피론」, 『역사와 현실』 34, 한국역사학회, 1999, 194~200쪽.

33) 러시아대장성 『한국지』의 『한국서지』 참조양상에 대해서는 이상현·윤설희, 『외국인의 한국사가 담론 연구』, 역락출판사, 2017, 3장[初出: 이상현·윤설희, 「19세기 말 在外 외국인인 한국사가론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을 참조.

34) A. H. Kenmure, "Bibliographie Coréene",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pp. 201~206.

3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외편, 앞의 책, 47~48쪽.

시기는 이러한 정황과 겹쳐 있었다.

켄뮤어 부인의 서평은 또한 개신교선교사들이 『한국서지』의 어떠한 내용을 주목했는지도 잘 보여준다. 그녀는 먼저, 3권으로 된 매우 큰 분량의 이 저술이 한국서지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책이 동양어학교의 전집 중 18~20집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이 책의 서명을 소개했다. 그리고 9개의 분류체계로 한국의 도서를 소개한 시도, 저자의 짧은 머리말과 171면 분량에 달하는 저자의 서론, 이 저술이 채택한 동양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표기체계를 설명하는 9쪽 분량의 지침 등과 같은 이 저술의 목차이자 체계를 거론했다. 또한 저술 전반에 흩어져 있는 도상자료들의 존재를 말했다.³⁶⁾ 이러한 그녀의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쿠랑의 저술을 그냥 차례대로 읽어준 것이다. 또한 한 편으로는 영미권 선교사들을 위해 쿠랑의 저술을 번역(영역)해 준 것이기도 했다.

사실 쿠랑의 큰 공적은 그가 조사한 한국 도서의 총체를 9분법의 분류체계로 체계화했다는 점이었다. 켄뮤어 부인은 각 분류항목을 영어로 잘 제시 해주었다. 한국개신교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은 자신의 한국문학론(1923)에서 한국문학이자 한국도서의 총체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몇 세기를 거쳐 한국의 인도-중국 문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광범위한 문헌을 축적해왔다. 프랑스의 모리스 쿠랑 교수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조사를 행해왔는데, 그의 서지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교육관련 서적, 어학서, 중국어·만주어·몽고어·산스크리트어 관련 어학서적, ‘역경’과 같은 철학적 고전을 비롯한 유학 경전들, 시집과 소설류, 예법과 풍습·제례·궁중전례·어장의(御葬儀)의 규범을 다룬 의범(儀範) 관계서, 복명·포고문·중국 관계서적·군서(軍書), 국사·윤리 관련 사서류·전기류·공문서류, 기예(技藝) 관련 서적, 수학·천문학·책력(冊曆)·점복서적·병법서·의서·농서·악학(樂學)·

36) A. H. Kenmure, op. cit., p. 201.

의장 및 도안 관련 서적, 도교 및 불교 관련 종교서적 등이다.³⁷⁾

상기 계열의 진술은 쿠랑이 『한국서지』에서 제시한 분류법에 기초한 것이었다. 물론 이 분류체계 및 그 분류방식은 동양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서구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서지』 1권에 수록된 목차에 이어, 「머리말」의 내용 일부분을 발췌 번역한다. 그녀는 쿠랑이 자신의 저술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인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목은 모두 생략했다. 그녀가 선택한 부분은 쿠랑이 제시한 『한국서지』라는 저술의 성격과 그 연구대상이 지닌 학술적 가치였다. 그녀는 쿠랑의 『한국서지』가 개척한 이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쿠랑 본인이 가장 잘 제시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쿠랑은 자신의 연구가 책 자체의 내용에 한정된 순수한 서지적 연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분야의 논의로 흥미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책의 외형적 형태와 묘사를 분리시킬 수 없었다. 또한 “지리, 역사, 풍속” “엄밀한 의미의 문학, 철학”에 관한 내용을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한국은 서구세계에 서서히 알려지게 된 나라였으며, 한국의 책들은 여전히 미지의 연구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극동의 문화 내에서 맡은 매우 특별한 역할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³⁸⁾는 사실을 『한국서지』를 훑어 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쿠랑의 말을 그녀는 그대로 번역했다. 쿠랑이 말한 이러한 한국학의 현황, 그 내외연과 학술적 가치는 영미권 개신교선교사 역시 공유할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셈이다.

이후 켄뮤어 부인은 『한국서지』 「서론」의 I장을 소개한다. 그녀는 한국 출판문화에 관한 쿠랑의 묘사와 서술을 요약하여 소개해준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의 책방과 이곳에 판매되는 고급 한적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대목을 가장 상세하게 번역하여 제시해주었다.³⁹⁾ 이어서 그녀는 쿠랑이 제시한 『한

37) 황도덕,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162쪽[J. S. Gale, “Korean Literatur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Kobe, 1923].

38)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xi쪽.

39) A. H. Kenmure, op. cit., pp. 202~203;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1~4쪽; 이하 인용은

국서지』의 자료수집 및 조사과정에 관해서도 소상하게 소개했다. 쿠랑이 플랑시가 수집했던 장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서울의 책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료 조사 및 구입을 시행했던 일,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도 파리국립도서관, 기메박물관, 대영박물관, 개인 소장 문고 등에 소장된 한국서적을 조사한 사실, 또한 도쿄의 서점, 조조시(增上寺), 우에노(上野) 도서관 등을 조사하여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서적을 발견했던 사실을 소개했다(204~205; 4~5쪽). 즉, 쿠랑이 조사한 서적의 소장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시해준 셈이다.

『한국서지』를 보면, 쿠랑은 자신이 직접 본 서적뿐만 아니라 서목에 책제 목만이 전하는 경우 역시 서지정보를 그의 저술에 수록했다. 이와 관련된 쿠랑의 저술에 대하여, 그녀는 쿠랑이 주석으로 밝힌 서목자료[『大典會通』, 『六典條例』, 『通文館志』, 『文獻備考』, 『大東韻玉』, 『後自警編』, 『東京雜記』]를 제외한 나머지 서목들[플랑시가 제공해준 왕실도서관의 장서목록, 중국의 『사고전서총목』, 난조 분유(南條文雄, 1849~1927)의 『大明三藏聖教目錄』(1883)]을 소개했다(p. 205; 5~6쪽). 이후 한국인의 성명(姓名), 출판소의 지명, 연대 등을 파악하는데 겪었던 쿠랑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번역했다. 그녀는 인명과 관련된 어려움에 관해서는 매우 상세히 번역했으며, 지명은 인명과 유사한 것이라 판단했는지 번역을 생략했다. 쿠랑이 한국의 간지(干支)를 활용한 연대표기를 설명한 대목과 한국에서 청이 아닌 명 나라의 연호를 쓰는 모습을 말한 대목을 번역했다(pp. 205~206; 7~10쪽).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7월호에서 켄뮤어 부인은 「서론」 II장 이후의 내용을 소개해준다. 짧은 지면의 탓일지도 모르나 I장에 대한 소개와 비교해보면 생략이 많은 편이었다.⁴⁰⁾ 한국서적의 종지와 판본을 거론한 「서론」의 II장에서, 켄뮤어 부인은 한국에서 세 종류의 종이질에 대한 설명 부분을 번역했다. 판본과 관련하여 목판 부분은 간략히 제시했다. 이후 유럽보다도 시대적으로 앞선 한국 활자 인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가장 상세히

본문 중에 이 글의 인용면수와 「서론」의 번역문 면수를 병기하여 표시.

40) A. H. Kenmure, "Bibliographie Coréene",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pp. 258~266.

번역했다. 한국에서 출판한 서적의 다양한 판본에 대한 쿠랑의 세세한 언급은 모두 생략했다. 또한 한국에서 인쇄된 서적은 너무 고가이기에 여전히 필사본이 존재하며 필요한 상황을 언급한 대목 그리고 쿠랑이 보았던 예술작품 수준의 필사본을 소개한 내용만을 번역했다(pp. 258~260; 10~21쪽). 그녀는 「서론」의 주요 요지와 한국서적 혹은 출판문화의 특성이 잘 보이는 대목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태도는 나머지 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한국의 문자사를 다룬 「서론」의 III장 전반부는 매우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적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 한글 그리고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한글, 한자의 혼용 양상, 한국에 한자 유입의 시기를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추론한 부분, 설총의 이두에 대한 해석 부분을 선별하여 번역했다(pp. 260~262; 21~32쪽). 「서론」의 III장 전반부는 후일 게일이 해당 부분을 완역하게 될 정도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자·한문이 상징해주는 중국문화 더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의 유교문명은 당시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불교, 도교, 유교 저술을 다룬 「서론」 IV장의 경우, 쿠랑이 한국의 문헌 전반을 다루기 위해 정의한 광의의 문학개념을 소개했으며, 불교, 도교 관련 한자 저술 내용 중 종교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했다. 유교가 한국 사상의 핵심이라는 진술과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없다는 쿠랑의 견해를 번역하여 소개했다(pp. 262~263; 41~46쪽).

한국 한문문헌 전반을 다룬 「서론」 V장 이후는 생략이 더 많은 편이다. 켄뮤어 부인이 주목한 부분은 유교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중국 저명한 저자의 고전적 전범에 의거한 한국 한문학의 물개성적인 작법이다. 이후 왕실의 장례에서 각 대신들이 시문 한 편을 지어 흰 비단의 旗에 적어 장례행렬에 들고 가도록 한 장면을 번역하여, 한시문이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례, 행정, 역사, 과학, 어학과 관련된 저술들의 문체는 문학작품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쿠랑의 지적을 번역했다(pp. 263~264; 54~60쪽). 역사, 지리 저술에 관한 쿠랑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임진왜란 이후 중국 측 병서가 출판되었으며, 한국인들이 거

북선의 발명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의학서의 경우 7세기 중국의 학풍을 수용하고, 선조 때 크게 발전하여 중국 측에 인정받은 사실을 지적했다(p. 264; 66~67쪽).

역사 저술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를 소개하고, 더불어 개인과 왕명에 의해 편찬된 다양한 역사서가 있다는 내용을 번역했다(p. 264; 62~63쪽). 그녀가 이처럼 본래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 저술 보다 의학서, 병서가 한국적 독창성이 있다는 쿠랑의 진술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듯, 그녀는 한국에 지리, 천문학, 수학 저술이 있지만, 이는 의학서, 병서, 어학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적인 독창성이 없다고 쿠랑이 평가한 내용을 번역했다(p. 264; 64~66쪽). 외국어 연구와 관련된 역관계급에 대한 쿠랑의 설명 그리고 범어 연구가 오직 승려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쿠랑의 서술을 번역했다(p. 264; 67~69쪽). 마지막으로 “학자와 역관, 양반이나 반양반, 공부한 사람, 관리어거나 관리가 될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중문학” 즉, 한글 문헌 전반을 다룬 「서론」 VI장에서, 고소설 작품에 대한 쿠랑의 비평 그리고 천주교 문헌에 대한 언급 부분 그리고 전술했던 「서론」의 결론 부분을 번역했다(pp. 264~266; 69~74쪽). 그녀가 번역한 부분은, 본고의 2장에서 언급했던 VI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켄뮤어 부인의 기사는 사실 쿠랑의 「서론」에 대한 축역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번역은 완역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대적으로 충실히 번역한 부분은 「서론」의 I장이었다. 그것은 1890년경 『한국서지』가 출판된 과정 그리고 쿠랑이 조사한 서적들의 소장처, 한국서지 연구의 난점들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즉, 이는 쿠랑이 제시한 자신의 ‘연구방법론’이었다. 쿠랑의 저술이 보여준 연구와 시도 자체가 당시로서는 그만큼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켄뮤어 부인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선교사들 전반에게 『한국서지』는 얼마나 읽혔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쉽게 내릴 수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한국서지』의 출간 이후 한국문학 번역 및 연구의 지평은 크게 변모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개신교 선교사의 정기간행물 속 한국문학논저를 정리해보면 한국의 속담과 설화를 거론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쿠랑 저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인다. 예컨대, 『동몽선습』,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과 같은 문헌을 해제한 글들이 있다. 또한 『동국통감』 등과 같은 한국의 사서를 번역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소개하는 글도 예로 들 수 있다.⁴¹⁾ 물론 이는 쿠랑 저술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개신교선교사들의 한국학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쿠랑의 저술이 이 심화과정을 가속화시킨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한 업적들이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 창간호에 수록되어 있었다.

[3] 한국에서 설립된 최초의 서양인 한국학 학술단체,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는 1900년 일련의 학술발표회를 기획했다. 먼저 1900년 10월 24일 ‘한국에 미친 중국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일의 첫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발표 주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중국과 분리된 ‘한국만의 고유한 독자성’을 제시하고자 한 험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발표가 12월 19일 이어졌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 창간호에는 두 사람의 발표문과 함께, 험버트의 논의에 대한 제일의 답변 그리고 존스(George Heber Jones 1867~1919)의 총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⁴²⁾ 제일과

41) 원한경의 서지목록 <문학>항목 중 한국에서 발행된 영미정기간행물에 주목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H. H. Underwood,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31, pp. 39~45).

42)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H. B. Hulbert, “Korean Survival”,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J. S. Gale, G. H. Jones, “Discussion”,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이하 해당 원문 및 역문은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2, 박문사, 2017을 참조); 이 학술발표회에 대한 설명은 H. H. Underwood,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ts Past and Presen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1, 1948~1949, p. 1; Lak-Geon · George Paik, “Seventy Years of the RAS i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7, 1972, pp. 25~39; H. G. Underwood,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ts Past and Presen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1, 2000, pp. 1~3; 이용민, 『제일과 험버트의 한국사 이해』,

헐버트는 한국 민족문화의 특성에 관한 서로 상반된 시각과 쟁점을 각기 제기했지만, 양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존스가 적절하게 총평해주었듯이, 게일과 헐버트, 두 사람이 제시하고자 한 바는 결국 ‘한국민족 혹은 한국 문화의 기원’이라는 공통된 주제였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한국체험 혹은 관찰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연구대상이었다. 한국의 문헌을 통해 규명해나갈 수밖에 없는 연구대상이었고, 이는 쿠랑이 개척해 놓은 업적과도 상통하는 바였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의 발표와 쿠랑의 저술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것일까? 일단 게일의 발표주제 그 자체 그리고 그의 한국문학관이 20세기 초반까지 쿠랑을 비롯한 유럽 동양학자의 한국문학부채론을 상당량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한국문학에 관한 게일의 서술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 문학, 사상 어느 것 하나 중국에 기원을 두지 않는 것이 없다”⁴³⁾는 한 문장 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예컨대, 그가 보기에 한국의 한자어는 한국의 고유어가 아니라, 중국에 종속된 언어였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고소설, 중국 고전의 전고로 가득 차 있는 한국의 시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러한 게일의 시각은 비단 쿠랑의 저술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술했던 19세기 말 외국인들의 한국문학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사실 한국의 고전문학을 서구적 근대문학 관념으로 접근했을 때, 도출되는 공통된 시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을 제시한 애스턴, 오카쿠라와 게일의 큰 차이점이 있다. 한글문헌을 주목한 그들의 한국문학론과 달리, 게일은 자신의 발표에서 한문으로 된 저술을 한국문학의 영역 안에 포괄, 검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 한문문헌 전반을 검토했던 쿠랑의 저술에 상대적으로 더욱 근접한 것이었다.

물론 게일은 쿠랑을 비롯한 과거 외국인들이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문헌

『교회사학』 6(1), 2007, 163~166쪽; 김승우, 『19세기 서구인들이 인식한 한국의 시와 노래』, 소명, 2014, 133~144쪽; 이상현, 『한국신화와 성경, 선교사들의 한국신화해석: 게일(James Scarth Gale)의 성취론과 단군신화 인식의 전환』, 『비교문학』, 58, 한국비교문학회, 2012, 54~59쪽;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 2013, 144~153쪽을 참조. 43)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64쪽.

자료들(『동국통감』, 『동몽선습』, 『아희원람』, 『청구약장』)을 다수 제시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게일에게 쿠랑의 논의는 상당량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암시해주는 것이 게일의 이력이다. 게일은 이 발표 이후, 쿠랑의 『한국서지』 「서론」 Ⅲ장을 번역하여 *The Korea Review*에 수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⁴⁴⁾ 「서론」의 Ⅲ장은 한국의 문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게일은 한글, 언문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은 번역하지 않았다. 그가 주목한 바는 한국에서 한자·한문의 역사와 설총의 이두와 관련된 쿠랑의 서술이었다. 이러한 배제와 선택에는 당연히 일정량 의도가 있었다. 「서론」에서 해당 내용은 단지 문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자·한문을 매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유교·불교·도교와 같은 사상이자 종교의 문제가 함께 함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부분은 게일이 담당한 발표주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관련이 깊은 논의였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쿠랑의 저술은 게일이 발표할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국 측 자료를 먼저 검토한 일종의 선행연구였던 셈이다. 더불어 게일의 발표 자체와 관련해서도 학술적인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보장해줄 주요한 연구사례였다.

쿠랑-게일이 제시하고 험버트의 논의로 이어진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서론」 Ⅲ장이 지닌 이러한 학술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쿠랑은 한국에서 한자의 도입과 그 사용에 관한 기록을 찾고자 했다. 사실 한국에 영향을 끼친 중국문화를 살피고자 한 게일의 고찰에 비한다면, 그 연구대상의 영역은 한정적인 편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통시적인 차원에서 탐구하는 구도 자체는 향후 게일의 연구를 충분히 선도하는 차원이었다. 『삼국사기』의 서술을 중심으로, 쿠랑은 고구려의 영토를 주목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설과 역사 속에 단군, 기자, 위만의 왕조가 자리 잡았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기자와 위만은 중국에서 온 망명객이었기에 그들의 존재로 인해 이 시기 처음으로 한국문화에 중국적 형태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⁴⁵⁾ 게일은

44) J. S. Gal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into Korea", *The Korea Review* I, 1901, pp.155~162; "The Ni-T'u", *The Korea Review* I, 1901, pp.289~292.

『동국통감』을 기반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더욱 상세히 서술했지만, 두 사람을 보는 시각은 쿠랑의 관점과 유사했다. 게일에게도 기자와 위만은 중국인이었으며, 두 사람은 한국문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었다.⁴⁶⁾ 이와 달리, 헐버트는 두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해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기자 보다 중요한 한국문명의 기원이자 한국민족의 시조는 단군이였다. 또한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만주의 반야만 부족인 연나라 사람이었으며, 나아가 그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⁴⁷⁾

그렇지만 이러한 고대왕국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서 한자·한문 유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었다. 이 역사가 한국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 혹은 유교 경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유교문명 혹은 한학에 관한 한국인들의 자기화 혹은 토착화를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쿠랑이 보기에 오히려 더욱 중요한 근거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든 각 왕조의 역사서 그 자체였다. 또한 한자를 활용한 왕명(王名)의 등장을 중요한 근거로 여겼다. 나아가 한자를 음성 표기의 수단이나 한학연구의 차원이 아니라, 그 언어로 글을 쓰는 차원에서 활용한 것을 한국 한학의 발전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치원은 “한국에서 한자로 글을 쓴 최초의 인물”, 한국 한학 전통의 원류이자 시원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또 한명의 중요한 인물, 설총이 거론된다. 유교적 교리의 시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가 교육기관의 차원에서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제공해준 문헌자료는 2종이었다. 하나는 『동국문헌비고』 소재 「학교고」였으며,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소재 「설총전」이었다. 두 자료 속에서 설총은 유교 경전을 번역했으며 이두를 발명한 인물로 서술된다.⁴⁸⁾

45)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21~22쪽.

46)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20~25쪽; 다만 게일은 조금 더 상세하게 두 인물을 이야기했다. 그는 기자가 한국에 문물을 전파하고 법을 세운 문화군주임을 말했고, 위만은 상투라는 풍습을 전해준 인물로 소개했다.

47) 위의 책, 105~111쪽.

48)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27~29쪽.

쿠랑은 설총과 최치원을 한국 유교문명의 시원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서술했다. 물론 두 사람은 애초 문묘에 위패가 모셔지는 명현이었다. 하지만 쿠랑은 두 사람을 근대적 학문의 시각에서 그 의의를 새롭게 부여했다. 설총의 경우는 이두를 창안하고 한문고전을 통속어로 번역한 인물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최치원의 경우는 그의 문집과 한국 문학선집들의 기록들을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두 사람을 각기 ‘한국어학’과 ‘한국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근대 분과학문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했다.⁴⁹⁾ 게일-헬버트 두 사람의 상반된 시각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또한 설총과 최치원이었다. 게일은 설총의 업적이 어디까지나 중국사상과 철학의 영향력을 대표한다고 인식했다. 이와는 달리 헬버트에게 설총의 이두리는 업적은 한국인을 중국문법체계로부터 분리하는 시도로, 일종의 ‘반중국적 실천’이었다. 게일은 최치원이 중국에서 과거급제를 하고 16년을 살았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당나라 황제들과 안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고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헬버트는 최치원이 비록 중국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는 귀국 후 한국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⁵⁰⁾

게일-헬버트는 설총과 최치원에 대한 다소 상반된 관점을 보여준 셈이었다. 특히 설총의 이두에 대한 관점은 한 편으로는 한학 학습에 편의를 제공해준 실천이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한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고유어를 지향한 실천으로 다소 상반되게 해석되었다. 당연히 쿠랑과 게일의 입장은 전자에 가까웠다. 존스는 최종 종합평을 담당했지만, 또한 설총과 최치원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킨 인물이기도 했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회의 이후, 설총과 최치원 두 인물을 주제로 한 논문 2편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존스는 문묘 즉, 한국 지식인이 기념하는 한국의 명현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서 한국문화 속에 토착화된 유교문명을 살피고자 했던 것이다.

49)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현, 『한국고전작가의 발견과 서양인 문헌학의 계보』, 『인문사회 21』 8(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889~894쪽.

50)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36~41, 44~45, 119~122쪽.

또한 그는 설총, 최치원이라는 개별 인물의 삶 자체에만 그 시야를 한정하지 않았다. 설총과 최치원 두 사람이 살아있던 한국사의 현장 즉, 두 사람이 살 아간 시대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고자 했다. 즉, 존스는 설총과 최치원 두 사람이 놓여 있던 시대적 의의를 각기 ‘불교의 쇠퇴와 유교의 부상’ 그리고 ‘나 말여초 왕조의 전환기’로 의미화하려는 지향점을 보여주었다.⁵¹⁾

왕립아시아학회 최종 토의문(1900)에서 존스는 게일-헨버트 두 논자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존스 역시 헨버트와 동일한 차원에서 한국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나열했었다. “중국의 영향이 들어오는 시기와 시점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점차 한국 사회의 얼굴을 뒤덮어 그 얼굴에 중국의 여러 특징들을 깊이 새겼다”⁵²⁾라고 최종 토의문에서 과거 지적했던 바, 즉, 게일이 탐구한 방향에서 한국 문화사의 일면을 고찰한 논문이 바로 설총과 최치원에 관한 논문이었던 것이다. 존스의 『설총, 한국문학의 아버지(Sul Chong, Father Korean Literature)』(1901)는 그 제명이 시사해주는 바대로, 설총을 ‘외국문학(한문)의 자국화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아니라 ‘한국인이 기억하는 한국문학의 기원’으로 규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는 쿠랑, 게일과 비교해본다면, 헨버트의 관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공유한 논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존스가 밝힌 전거문헌 역시 『유림록』, 『동국문헌비고』, 『동국통감』, 헨버트의 이두에 관한 논문(1898)이 전부였다. 즉, 그는 이 논문에서 쿠랑을 참조한 사실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 한문 자료에 대한 번역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총을 한국문학의 시원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그의 공적을 서술한 대목이다.

설총은 유교 경전인 9경(Nine Classics)의 뜻을 신라의 일상어로 설명하기 시작

51)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한국고전작가의 발견과 서양인 문헌학의 계보』, 『인문사회 21』 8(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을 참조. 해당 논저 서지는 아래와 같다. G. H. Jones, “Sul Chong, Father Korean Literature”, *The Korea Review* I, 1901; “Ch’oe Ch’I-Wun: His life and Times”,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II(1), 1903; 이하 해당 원문 및 역문은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을 참조.

52)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184쪽.

함으로써 그 보물을 후세대들이 알게 하였고 이리하여 더 없이 소중한 축복을 한국에 선사하였다.⁵³⁾

즉, 존스는 유교 경전을 한국의 일상어로 번역한 인물로 해석했다. 이는 쿠랑과는 매우 다른 해석이었다. 쿠랑은 『삼국사기』 『설총전』에 근거하여, “그의 제자의 훈도를 위해 통속어로 9경을 소리 높여 읽도록 했으며 지금까지도 학생들은 그 예를 본뜨고 있다”⁵⁴⁾고 번역했다. 이 시기 쿠랑은 『삼국유사』를 접할 수 없었기에, 한국에는 향찰과 같은 고유어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이 구절에 대하여 “설총의 업적은 중국어 본문 강독에 사용되는 한국어 따를 써놓음으로써 큰소리의 낭독과 그에 따른 중국어의 이해를 쉽게 만든 것이다”⁵⁵⁾라고 해석했다. 정리하자면, 쿠랑은 한문을 번역할 한국의 고유어 서기체계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차이점은 다른 곳에도 있었다. 쿠랑이 한국에서 『한국서지』를 집필하던 시기, 한문을 대신할 수준으로 활용되던 한글 문체의 새로운 모습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20세기 초 개신교선교사들과 달리, 쿠랑은 국한문혼용체의 활용 모습을 목도할 수 없었다. 1897년 2월 25일 프랑스에서 플랑시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는 프랑스에서 만나게 된 프랑스외교관으로부터, “외무부 공무원들이 지금은 언문과 섞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복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이기에, 그는 플랑시에게 자신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이 새로운 문체의 견본으로 해당 공문서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존스의 경우, 사정이 매우 달랐다. 그는 설총의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시기를 “중국의 단어와 관용어의 첨가로 한국어가 훨씬 더 풍부해진 한국어의 변용이 사실 시작되었던 시기”⁵⁶⁾라고 평가했다. 20세기 초 한국의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 또한

53) 위의 책, 217쪽;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의 것.

54)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29쪽.

55) 위의 책, 30쪽.

56)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217~218쪽.

한국의 국한문 혼용체가 순한글 전용문체보다 훨씬 더 유용한 문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⁵⁷⁾

존스의 설총에 관한 논문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쿠랑보다 훨씬 더 상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존스의 논문에서 설총의 모습은 ‘한국문학의 아버지’라기보다는 ‘한국 유교문명의 시원’이라는 의미가 더욱 적절한 것이었다. 존스는 『화왕계(花王戒)』와 같은 설총의 저술을 추가했지만,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어디까지나 ‘유교경전의 번역과 이두의 발명’에 있었다. 비록 존스는 『유림록』을 전거문헌으로 밝혔지만, 『유림록』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본다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쿠랑의 참조문헌이었다. 즉, 존스와 쿠랑은 실상 동일한 전거문헌을 공유했던 셈이다. 또한 존스가 이 논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불교의 쇠퇴와 유교의 부상’이라는 거시적인 구도 자체는 쿠랑이 한국에서 한자·한문 유입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 구도 속에서 이미 마련된 것이었다.

나아가 존스가 『한국서지』를 함께 참조했을 가능성도 높다. 존스가 『한국서지』를 참조했다고 명시한 그의 또 다른 논문, 『최치원 : 그의 삶과 시대 (Ch'oe Ch'I-Wun : His life and Times)』(1903)를 보면, 이 점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는 최치원의 저술목록을 제시하기 위해, “모리스 쿠랑의 기념비적 저서 『한국서지』에 흠어져 있는 논평들” 즉, 『한국서지』에 수록된 최치원과 관련된 서적들의 서지를 정리했음을 밝혔다.⁵⁸⁾ 그러나 그 참조의 범위는 존스가 명시한 바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그 일례로, 아래와 같이 한국 유교문명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동국문헌비고』 51권, 『학교고』)에 대한 존스의 참조양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비고』를 읽어보면, 최치원의 탄생 5년 후인 864년에 신라왕은 국학에 직접 참여하고 학자들이 왕 앞에서 중국의 고전들을 읽고 설명하였다.……왕이 참석한

57)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임상석·이준환, 『유몽천자 연구』, 역락출판사, 2017, 2장[初出 : 이상현, 『유몽천자』 소개 영미문학작품과 개일(J. S. Gale)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 개신교 선교사의 근대문체를 향한 기획과 그 노정(1)],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을 참조.

58) 이진숙·배윤기·강영미·이상현 역주, 앞의 책, 280~285쪽.

가운데서 중국고전의 공개 강연이 열리는 것을 유의미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불교보다는 유교의 기초 위에 한국교육을 놓고자 하는 한 흐름의 시작을 표지하는 사건으로 믿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비고』의 다음의 말이 흥미롭다. “이 때에 최치원이 살았는데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관리가 되었다.”(①) 이 진술은 최치원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중국문학을 대중화하는 운동의 강력한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⁵⁹⁾

최치원과 관련된 서술(①)은 『동국문헌비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반면 쿠랑이 한국의 유교경전을 총괄하는 서술부분을 펼쳐보면, “864년 『문헌비고』에 따르면, 신라의 임금은 국학을 방문하여 그의 앞에서 경서를 논하도록 하였으며 880년에는 經書와 三史를 신라왕조의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 무렵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관리가 된 최치원이 살았다.**”⁶⁰⁾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존스는 『동국문헌비고』 소재 원문이 아니라, 『한국서지』 Ⅲ부 1장[儒敎部 經書類]의 총설을 옮겨 놓은 것이다. 한국 유교문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쿠랑이 주목한 『동국문헌비고』의 대목들, 설총과 최치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들은 이처럼 한국의 한문고전 세계에 관심을 가진 한국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유통되었던 셈이다.

어떤 한국 측 문헌자료의 어떠한 대목에 필요한 해당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서양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물론 한국문헌자료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지식을 귀납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문헌의 수는 이러한 귀납적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헌 자료의 입수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적어도 1910년대 이후 조선광문회 혹은 한국주재 일본민간학술단체의 대량출판된 한국고전 영인본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즉, 이러한 당시의 정황과 사실들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플랑시의 소장 장서를 비롯한 다수의 한적을 검토한 쿠랑의 경험

59) 위의 책, 250~252쪽;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의 것.

60)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141쪽;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의 것.

과 그 결과물은 개신교선교사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가 출판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을 주목했다. 프랑스의 젊은 외교관이 남긴 이 한국학의 흔적을 살피며, 한국학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립되기 이전 서양인 한국학의 현장과 그 학술네트워크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쿠랑이 『한국서지』를 출판할 수 있었던 기반이자 토대였던 유럽 동양학자의 학술네트워크를 주목했다. 쿠랑은 외국인의 한국학 논저가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한국서지』를 집필하지 않았다. 『한국서지』 「서론」(1894)의 참고문헌 목록들이 보여주듯이, 쿠랑이 참조하며 공유할 수 있었던 유럽 동양학자들의 선행연구가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동양학 학술잡지, 학회 등과 같이 재외의 공간에서 서양인의 한국학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던 중요한 학술적 기반이었다. 쿠랑은 외국인들이 한글로 표기된 한국문학을 기반으로 제출한 한국문학론을 주목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문학론과 하나의 논리를 공유했다. 그것은 한국에는 서구적 근대문학에 부응하는 예술미를 지닌 문학과 민족적 고유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이 없다는 논리, ‘한국문학부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론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문학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들의 논저만으로는 이 시기 한국문헌을 통해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연 쿠랑의 학술사적인 위상을 온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서구적인 근대문학 개념과 한국 국문문학의 만남이라는 제한된 지평이 아니라, 유럽의 언어·문헌학(philology)적인 전통과 한국 문헌의 만남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거할 때, 그 의의가 잘 드러난다. 근대적인 문학개념이 아니라 언어·문헌학(philology) 즉, 특정한 민족의 언어와 문학을 조사하여 그 문화의 성질을 밝히는 학문적 방법론

을 주목하면, 이 시기 그들이 개척한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이 보인다. 이는 쿠랑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영국외교관이었던 제임스 스콧은 한국사찰에서 불교문헌자료를 입수함으로써, 한글의 기원을 추적했으며 나아가 오래된 연원을 지닌 한국불교문명의 역사를 발견했다. 쿠랑, 스콧 두 사람에게 한국문헌은 한국어, 한국민족의 기원과 과거라는 한국학의 새로운 연구대상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서지』의 출간이후, 새롭게 출현한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의 한국학과 학술네트워크의 모습을 묘사해보고자 했다.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었던 한국 개신교선교사 집단은 쿠랑의 저술을 참조하며 쿠랑이 개척한 한국학의 새로운 영역을 계승한 집단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들은 동양학과 분리된 전문화된 한국학의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이 쿠랑의 저술을 참조한 양상, 또한 그들이 쿠랑과 함께 공유했던 한국학의 새로운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 혹은 국경의 차이로 제한할 수 없는 쿠랑과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학을 위해 형성하고 있었던 학술네트워크의 일면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울-옌푸-톈진-상하이-요코하마-파리-런던’ 등의 시공간을 횡단하며 형성하고 있었던 일종의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묘사해보고자 했다.

본격적인 한국학 전문 잡지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개신교선교사의 정기간행물에서, 1897년 켄뮤어 부인의 서평을 통해 쿠랑의 『한국서지』가 소개된다. 『한국서지』 1~3권이 완간되자 곧 이에 대한 서평이 등장한 것이다. 그녀의 서평은 『한국서지』에 대한 비평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저술에 대한 소개이자 번역에 더욱 근접했다. 특히, 『한국서지』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서론」을 발췌, 번역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한국의 출판문화, 한국서적의 소장처, 목록자료, 한국서지 연구에 있어서의 난점 등이 거론된 「서론」 1장을 가장 충실히 번역했다. 더불어 「서론」의 주요요지를 잘 개괄해주었다. 이 중에서 후일 게일이 완역하게 되는 내용, 한국의 한자·한문의 유입시기와 역사를 고찰하고 있는 「서론」의 Ⅲ장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 창간호에 수록된 게일-헐버트의 발표문 그리고 이후 존스의 설총, 최치원에 관한 논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의 문헌을 통해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 일련의 논의들은 과거 유럽 동양학자가 한글문헌을 주목한 한국문학론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했다. 쿠랑과 개신교선교사들은 한문 문헌 전반을 자신의 연구대상으로 포괄했다. 물론 그들 역시 ‘국어[모어=국어]’ 중심의 언어내셔널리즘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한국의 한문학 및 한학을 국문문학과 동등한 한국만의 고유한 문학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한문, 유교 문명을 비롯한 중국문화의 토착화라는 측면을 주목했으며 이를 탐구했다. 즉, 개신교선교사의 한국학 속에는 젊은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쿠랑이 개척한 한국학의 흔적이 함께 새겨져 있었던 셈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프랑스외무부문서』 6, 국사편찬위원회, 2006.

김채현 외 역주, 『일본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박문사, 201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 콜레주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편, 『『콜랭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모리스 쿠랑 평전과 서한자료집』, 소명출판, 2017.

문세영, 『조선어사전』, 박문서관, 1938.

이능화 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역주 조선불교통사』 5, 동국대학교, 2010.

이진숙 외 역주,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1~2, 박문사, 2017.

조선총독부 편저, 김문학 옮김,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임, 2010.

M. Courant, 파스칼 그러트·조은미 옮김, 『프랑스 문헌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살림, 2009[Collège de France éd., *Études Coréennes de Maurice Courant*, Paris: Éditions du Léopard d'Or, 1983].

_____, 이희재 옮김, 『한국서지』, 일조각, 1997[1994][(*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894~1896, 1901)].

A. H. Kenmure, “Bibliographie Coréene”,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E. H. Parker, “Philological Essay”, H. A. Giles, *A Chinese-English Dictionary*, Lodon: Kelly&Walsh, 1892.

G. H.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14.

_____, “Ch’oe Ch’il-Wun: His life and Times”,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II(1), 1903.

_____, “Sul Chong, Father Korean Literature”, *The Korea Review* I, 1901.

H. B. Hulbert, “Korean Survivals”,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H. G. Underwood & H. H. Underwood, 『英鮮字典』,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5.

H. H. Underwood,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31.

_____,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31.

H. N. Allen, *Korean Tales: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New York & London: The Nickerbocker Press, 1889.

J. Scott, “Introduction”,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Seco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1893.

_____, “Sanskrit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IV, 1897.

_____, “Stray Notes on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The Chin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XXVIII, 1894.

J. S. Gal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into Korea", *The Korea Review* I, 1901.
 _____,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_____, "The Ni-T'u", *The Korea Review* I, 1901.
 J. S. Gale & G. H. Jones, "Discussion",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W. G. Aston, "On Korean popular literature", *Th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XVIII, 1890.
 W. M. Royds,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ee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5, 1936.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雜誌』 8(74~75), 1893, 4~5쪽.
 小倉進平,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940.

2. 논저

김승우, 『19세기 서구인들이 인식한 한국의 시와 노래』, 소명, 2014.
 _____, 『19세기 말 서구인 윌리엄 G. 애스턴의 한국문학 인식』,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2008.
 이상현, 『물려진 한국문학사의 시각』, 보고서, 2017.
 _____,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서지』의 흔적』, 『서강인문논총』 4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_____, 『삼국사기에 새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2013.
 _____,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게일(J. S. Gale)의 국한문제 번역실천 : 개신교 선교사의 근대문제를 향한 기획과 그 노정(1)』,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_____, 『한국주재 영국외교관, 스콧(J. Scott)의 '훈민정음 기원론'과 만연서본 『眞言集』』,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학회, 2016.
 _____, 『한국고전작가의 발견과 서양인 문헌학의 계보』, 『인문사회 21』 8(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_____, 『19세기 말 한국시기문학의 구성과 '문학텍스트'로서의 고시가』, 『비교문학』 61, 한국비교문학회, 2014.
 이상현 · 임상석 · 이준환, 『유몽천자 연구』, 역락출판사, 2017.
 이상현 · 윤설희, 『외국인의 한국시가 담론 연구』, 보고서, 2017.
 _____, 『19세기 말 在外 외국인의 한국시가론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4.
 이상현 · 윤설희 · 김채현,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한국문학론(1893)의 근대학술사적 함의』, 『일본문화연구』 50,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이상현 · 이은령, 『모리스 쿠랑의 서한과 한국학자의 세 가지 초상』,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_____,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와 훈민정음 기원론』,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2017.
 _____,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회,

2013.

-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 이연숙,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옮김, 『말이라는 환영』, 심산출판사, 2012.
- 이영미,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학연구』 2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 이용민, 『게일과 헐버트의 한국사 이해』, 『교회사학』 6(1), 한국기독교교회사학회, 2007.
- 이은령, 『19세기 프랑스 동양학의 한국어 연구: 아벨 레뮤자(Abel-Rémusat)에서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까지』, 『코기토』 8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7.
- 이준환, 『조선에서의 한국어학 연구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끼친 유럽과 일본의 학술적 네트워크 탐색』, 『코기토』 8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이혜은, 『모리스 쿠랑과 『한국서지』에 대한 인식과 연구의 통시적 접근』,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 정구웅·조재룡, 『유럽 동양학자 레옹 드 로니의 탄생과정과 그의 한국학 저술에 관한 서지검토』, 『코기토』 8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7.
-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상대적 정체성론·정치사회부패론·타율적 개혁불가피론』, 『역사와 현실』 34, 한국역사연구회, 1999.
- 현광호, 『청일전쟁 이전 시기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의 조·청관계 인식』, 『대구사학』 99, 대구사학회, 2010.
- 허경진·유춘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朝鮮典籍)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 _____, 『애스턴(Aston)의 조선어 학습서 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 『인문과학』 98,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3.
- D. Bouchez, 전수연 역,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 『동방학지』 51·5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D. Bouchez, “Un défricheur méconnu des études extrême-orientales Maurice Courant”, *The Journal Asiatique* CCLXXI, 1983].
- M. Orange, 이경일 옮김, 『1910년 일본의 조선병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동북아역사논총』 29, 동북아역사재단, 2010.
- I. F. McNeely, Lisa Wolverton, 채세진 역, 『지식의 재탄생: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 살림출판사, 2009.

Traces of Koreanology Left By a French Diplomat

– The Publication of *Bibliographie Coréenne* and Afterwards –

Lee Sang-hyun*

This article focused on *Bibliographie Coréenne*(1894~1896, 1901), published by Maurice Courant(1865~1935) who was a French diplomat and Orientalist. The publication process of *Bibliographie Coréenne* and situations after its publication are worth giving attention to in relation to the beginning of modern Koreanology. This is because this event shows the time period before Koreanology was established in institutional dimensions along with the Koreanology of Westerners and aspects of its academic networks. Courant researched Korean literature, possessing the foundation and groundwork upon which he could present his theses and writing. Courant shared activities in academic organizations and journals with other European Orientalists. Courant referred to early Koreanology writings of European Orientalists distributed within such academic networks and wrote his own work. He shared the Theory of an Absence of Korean Literature, which argues that there are no literary works in Korea that compare with modern literature or that display the excellence of Korean ethnic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diplomats, Orientalists, Protestant missionaries, and the new images of Koreanology that they shared in that time period with only the prospect of Korean literary theories. It was an academic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methodology that revealed the properties of that culture through the study of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Korean people, or in other words, it was their academic tradition of philology. Also, it was a new attempt by foreigners who wished to examine the origins and history of Korean national culture through the literature of Korea. After the publication of *Bibliographie Coréenne*, Korean protestant missionaries were able to pass down such tendencies of new Koreanology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Courant.

Key words :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hilology, diplomat, European Orientalist, Korean Protestant missionary

